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1. 26.(목) 12:00
(지 면) 2026. 11. 27.(금) 조간

재난관리물품 보관부터 현장 운송까지, 민관 협력으로 재난대응 역량 높인다

- 행안부, 11월 26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1주년 간담회 개최
- 재난물품 1,800만여 점 관리, 긴급 운송 50회 등 민관 협력 성과 확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26일(목),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재난물류기업") 지정 1주년을 맞아 ㈜한진, BGF로지스,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4개 기업과 성과공유 간담회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민간의 물류 전문성과 전국적인 운송망을 재난 대응에 활용하기 위해 4개 기업을 재난물류기업으로 지정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1년간 민간 물류기업과 협력해 추진한 재난관리물품 보관·운송 성과를 공유하고, 재난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재난물류기업은 전국 12개 시·도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에서 약 1,800만 점에 달하는 재난관리물품을 보관·관리하고, 호우·화재·폭염 등 재난 현장에 총 50회에 걸쳐 물품을 긴급 운송했다.

* CJ대한통운 8개소, ㈜한진 3개소, BGF로지스 1개소

주요 사례를 보면, CJ대한통운은 경남 집중호우 당시 대형 양수기를 운송하고, 무안 화재와 전남광주 지역 폭염 대응을 위해 안심 꾸러미와 생수 등 구호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한진은 대구 지역 호우와 정전 당시 양수기와 구호 세트를 긴급 운송했으며, BGF로지스는 여름철 수방·폭염 대응 물품을 전국 각지에 배송했다.

민간 기업의 물류기술을 활용한 운송 경로 최적화 성과도 있었다. BGF로지스는 전북 지역 자동심장충격기(AED) 배송 과정에서 운송 경로를 최적화해 투입 차량은 67%, 운송비는 약 40%를 줄였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재난물류기업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와 업무 협업 표준 절차서(SOP)를 마련했다. 올해 3월에는 재난물류기업이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에 처음으로 참여해 물품 운송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기업별 물류 거점과 운송 역량을 활용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재난 대응 훈련으로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물품이 현장까지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은 "민간 물류기업의 전문성과 전국적인 운송망을 활용해 재난 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 물류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재난자원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선무 (044-205-5270)
		담당자	사무관	강석도 (044-205-527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